

새미골문화마당 문화예술아카데미, 시니어 성과발표공연 ‘우리동네스타’ 선보인다!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은 오는 12월 20일(토) 오후 3시 장생포문화창고 소극장 W에서 ‘우리동네스타’ 성과발표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새미골 문화마당에서 운영한 △스트릿 마더 파이터(스트릿댄스) △빛나는 고래마을극장(창작연극) △마을가왕(트로트 가요) 등 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시니어 수강생들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의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수강생과 전문 예술강사가 함께 만드는 공동 창작 무대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성과발표 무대에는 세 가지 무대가 마련됐다. 스트릿 댄스 공연 <스트릿 마더 파이터>, 창작 연극 <빛나는 고래마을 극장>, 트로트 가요 무대 <마을가왕>으로 각 무대에는 시니어들의 도전과 개성이 담겨있다.

먼저, <스트릿 마더 파이터>는 평균 나이 60대의 장생포 어머님 8명이 지난 8월부터 꾸준히 연습해 준비한 스트릿 댄스 공연이다. “무릎은 쭈셔도 스웬은 못 참지!”라는 문구처럼 시니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힙합·스트릿댄스 장르에 도전해 준비한 무대로,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올랄라세션의 <FONKY>에 맞춰 펼쳐지는 퍼포먼스에는 본때크루의 서주형 강사와 크루 멤버들이 함께 참여해, 세대가 어우러진 힙한 합동 무대를 완성한다.

이어지는 <빛나는 고래마을 극장>에서는 시니어 5명이 참여한 창작연극 「새미골 신데렐라」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지난 5월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결과물로, 새미골 마을 축제를 앞두고 각자의 사정으로 지쳐 있던 할머니들이 우연히 ‘신데렐

라 공연'을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청소와 일상, 사소한 다툼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며 '무도회 같은 인생 한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따뜻하게 그려지며, 마침내 마을 모두가 신데렐라가 되는 반전이 펼쳐진다. 해당 작품은 현직 배우이자 퍼플웨이브 대표인 박규남 강사의 지도 아래 완성도를 높였으며, 시니어들의 실제 삶과 자전적 이야기를 담아 더욱 의미 있는 무대를 완성했다.

또한 시니어 5명이 참여하는 〈마을가왕〉 무대도 이어진다. 이들은 현직 트로트가수 배은성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음색과 리듬, 무대 표현을 체계적으로 익혀왔으며, 각자의 삶과 사연을 담은 트로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의 숨은 예비 보컬 스타로 성장하고 있는 이들의 도전과 열정이 더해져 한층 풍성한 공연을 완성한다. 아울러 배은성 강사의 트로트 메들리 무대도 함께 마련되어, 전문 가수의 라이브 공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래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시니어분들이 무대에 올라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통해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 문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10.
